

카뱅·케이뱅크 1분기 적자 축소... 인터넷전문銀 실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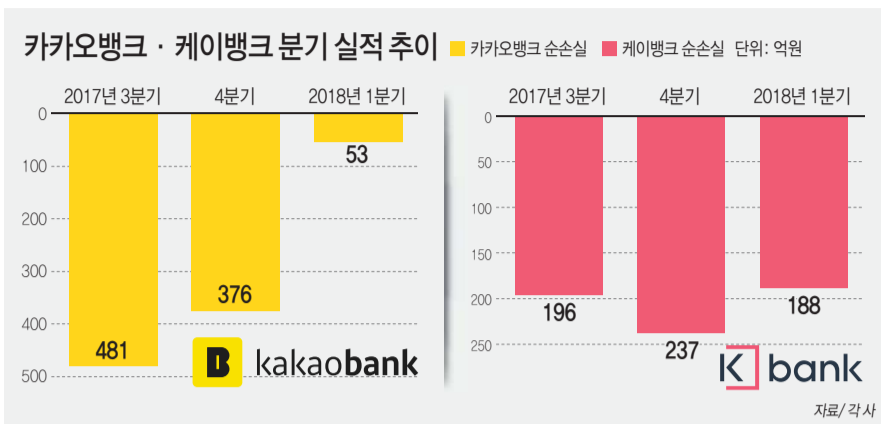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손익분기점 근접
케이뱅크 지난해 4분기 比 개선
연체율 0.03%·0.17% 수준 유지

인터넷전문은행의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적자 규모가 53억원으로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했다.

6일 카카오뱅크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순손실은 5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 481억원, 4분기 376억원 순손실에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빠르게 늘어난 대출로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카카오뱅크의 이자이익은 지난해 3분기 113억원에서 4분기 376억원, 올해 1분기 544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총당금 환입이라는 일회성 요인도 실적개선에 힘을 보탤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공격적인 대출 성장과 순이자마진(NIM)에 제고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일부 총당금 환입으로 개선됐다"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해도 1분기 순손실은

10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자산 총액은 7조9000억원, 자본총계는 6624억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분기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판매관리비 증가로 적자규모가 커졌던 지난해 4분기 237억원 순손실에서는 개선됐지만 3분기 196억원

순손실 수준에 머물렀다.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대출 늘리기에 나서지 못한 것이 실적에 그대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적극적인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지난 4월 1조3000억원 규모까지 늘렸다. 반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1차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그쳤고, 현재 1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가 진행 중이다. 2차 유증까지 끝내도 자본금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케이뱅크의 자산 총액은 1조5000억원, 자본총계는 2148억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연내 분기 기준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대출채권 등 이자부자산이 7조7000억원을 달성한 가운데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추가적인 성장에 예상된

다"며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분기 기준 BEP 달성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용 등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일회성 이익도 있었다"며 "향후 전산·IT 등 각종 비용과 공격적인 대출 늘리기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연내 분기 흑자달성은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카카오뱅크 2.12%, 케이뱅크 2.11%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중금리대출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시중 은행 대비 NIM이 높았다.

연체율은 카카오뱅크 0.03%, 케이뱅크 0.17%로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가운데)이 다문화 학생들과 포즈를 취했다. /우리은행

우리다문화장학재단 430명에 장학금 6억 지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18년 다문화 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다문화 학생 430명에게 총 6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학업 장학분야 410명과 특기 장학분야 20명 등 총 430명이다. 부모 및 본인 출생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총 30개국에 달한다. 장학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년과 장학분야에 따라 각각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되며, 학비는 물론 교재구입 및 자기개발비 등 학업증진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신설된 특기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은 육상, 농구, 사격, 미술, 음악, 어학 분야에 재능을 가진 다문화 학생들이다. 특별한 재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은 물론, 자격증 취득 및

대회 출전비용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된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우수 학생들로서 점차 우리나라를 빛낼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과 계열사에서 2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2012년부터 3340명의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해 총 2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문화 학생의 꿈을 응원해왔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농식품기업여신 20조 넘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기업여신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기업여신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식품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농업인 포함)에게 지원하는 여신이다.

농협은행은 2012년 3월 범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출범했고, 이후 6년 동안 농식품기업여신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기업여신 잔액은 사업구조개편 전 대

비 11조7000억원, 전년 말 대비 7364억원 늘어 5월 말로 20조원을 달성하게 됐다.

한기열 농협은행 부행장은 "스타트업(start-up) 기업 및 농업인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농업·농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하나금융, '보육 인프라' 전방위 민간협력

90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등
비수도권 중심 보육환경 제공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재정형편 때문에 주저하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부위원장 역시 "부모들은 일하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첫번째)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두번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면서도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무엇보다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원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회장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민간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이번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기업

과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세종특별자치시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명동 직장어린이집 착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 밝힌 '2020년까지 1500억원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90개, 직장어린이집 10개 총 100개의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kmh@

〈국내은행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 현황〉

(단위: %)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비율
16.0 이상	경남(16.47/13.07/11.80) 광주(16.20/12.74/12.13)	씨티(18.94/18.31/18.31) 신한(16.30/13.58/13.28) 하나(16.27/14.04/13.93)	
15.0 이상	부산(15.70/13.16/12.41) 농협(15.25/12.53/12.26) 우리(15.09/12.98/11.07)	국민(15.80/14.89/14.89) SC(15.37/15.37/15.37) 산업(15.34/13.31/13.31)	
14.0 이상	제주(14.56/10.82/9.44)	기업(14.13/11.81/10.11) 대구(14.74/12.94/11.60)	
13.0 이상	전북(13.38/10.20/10.15)	수협(13.62/11.27/10.77) 수출입(13.26/11.56/11.56)	케이(13.48/12.97/-)
13.0 미만		카카오(10.96/10.63/-)	
	9.5 미만	9.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보통주자본비율(케이, 카카오는 기본자본비율)

은행권 총자본비율 '15.34%'로 개선

국내 은행들의 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34%로 개선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34%, 13.30%, 12.7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10%포인트, 0.18%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은행들 이익이 대폭 늘면서 총자본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웃돌았다.

은행별로는 씨티(18.94%), 경남(16.47%)의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카카오뱅크(10.96%), 수출입(13.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해 총자본비율이 기존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주주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34%로 지난해 말 대비 0.06%포인트 하락했다. 총자본이 늘었지만 위험가중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이다.

자기자본비율은 13.00%, 보통주자본비율은 12.47%로 지난해 말 대비 각각 0.07%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